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무등기 야구 우수투수상’ 장충고 최원제 미국서 러브콜

지난 18일 광주일보 주재 제 14회 무등기전국 고교 대회 결승전에서 승리투수로 대회 우수투수상을 받았던 장충고 최원제(18)가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러브콜을 받았다.

최원제는 올해 고교무대에서 투·타 모두 인정 받은 선수. 그동안 그를 지켜봐 온 미네소타는 그의 투수 능력보다는 타격 재능을 키울 계획이다.

투수 최원제는 이번 무등기 대회에서 타자로 나서 4경기에 출전, 13타수 6안타, 3득점, 4타점, 타율 0.462로 불꽃타를 뽐냈다.

미네소타에서 지난 5월 대통령배 전국 고교대회 직후 스카우트팀을 보내 영입 의사를 공식화했고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제시했다.

미네소타 계약금 30만달러 제시

투수능력보다 타격 재능 키울 듯

최원제측도 미국진출로 결심을 굳힌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메이저리그 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원제측은 동기생인 서울고 이형종이 LG와 계약하면서 받은 4억3천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네소타 한국 담당 스카우트 김태민씨가 호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달 초면 결원이 날 예정이다.

우투좌타인 최원제는 올해 국내 고교선수 중 최고 수준의 스윙능력을 보유한 선수로 평가 받는다. 단단한 하체에서 비롯된 파워도 좋고 정교함마저 갖췄다. 타자로서 뿐 아니라 투수로도 140km 중반의 묵직한 직구를 뿌린다. 장충고 유영준 감독은 “미네소타가 현재 윈손거포가 부족해 (최)원제를 꼭 영입할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제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지으면 국내 타자로는 8번째 미국 진출이다. 최경환(94년·에너하임), 서재용의 형인 서재환(97년·뉴욕 메츠), 최희섭(99년·시카고 컵스), 오철희(99년·보스턴), 권운민(99년·시카고 컵스), 추신수(2000년·시애틀), 정영진(2000년·샌디에이고) 등이 그의 선배들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사 개인 통산 600홈런...5번째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슬러거 새미 소사(39)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개인 통산 600홈런 고지에 오른 다섯번째 선수가 됐다. 소사는 21일 텍사스주 알링턴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인타리고 홈경기에서 4-1로 앞선 5회말 상대 선발 제이슨 마르키스로부터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을 만들었다. 자신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 뛰면서 홈런 545개를 쳤던 친정팀 컵스를 상대로 뽑아낸 홈런이었다.

소사는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든 채 베이스를 돌았고 더그아웃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소사는 메이저리그에서 랭크 아론(755개), 배리 본즈(748개), 베이브 루스(714개), 윌리 메이스(660개)에 이어 개인 통산 600홈런을 달성한 다섯 번째이자 현역으로는 본즈에 이어 두 번째 선수가 됐다.

한편 텍사스는 소사의 홈런 덕분엔 승리를 굳혀 7-3으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은퇴는 무슨... 명예회복부터”

‘은퇴설’ 떠도는 KIA 이종범 일문일답

“부진을 털고 명예 회복 뒤 은퇴 여부를 결정하겠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37·KIA)이 2년여 동안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불거진 ‘은퇴’라는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다. 올 시즌 내내 2할도 안되는 타율 때문에 지친 심신을 추스리기 위해 2군행을 택했지만, 주변에선 ‘은퇴’를 들먹이며 그를 흔들고 있다.

21일 2군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듯 오전 훈련 후 탈의실로 들어가 1시간이 넘도록 ‘나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종범을 찾아가 만났다.

그에게 최근 떠돌고 있는 은퇴설에 대한 심경과 훈련 계획,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이종범과 일문일답.

❶ 현재 심정 서감독·구단에 솔직히 서운

-2군행을 은퇴설로 보는 시각이 있던데.

▲최근 일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정환 감독이 언론에 ‘안되면 그만’이라 하지 않겠느냐는 위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극을 주기 위한 말로 이해한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은 있다. 지난해부터 2년여동안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14년동안 고향 구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타 구단에서 여러 유혹도 있었지만, 배고픈 해태시절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고향팬들과 구단에 대한 의리 하나로 버텼다. KIA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구단으로부터 은퇴에 대해 들은 적은 있는가.

▲언론 보도 전·후에도 없었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 훈련도 잘 되지 않는다. 구단과 대립하는 것은 싫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면 타이거즈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후회할 것 같다.

팀 주장을 바꾼 것도 그렇다. 6년동안 주장을 맡아왔는데, 단 한마디 상의나 양해도 없이 주장을 교체했다. 내 아들도 광주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의리보다 실리를 찾으려고 말해주고 싶은 정도다.

❷ 부진 이유 하체 힘 떨어져 타격감 잃어

-구단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구단에 일생을 바친 선수의 경우 마지막 명예는 지켜줬으면 한다. 그라야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이 구단에 배를 묶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2군행을 스스로 선택한 이유는.

▲19일 면담도중 서 감독이 1군 엔트리에서 뺏다고 하더라. 10일간 2군에 머무를 바엔 차라리 일정 기간동안 몸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경기가 자주 취소되는 잠마시즌인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계속되는 부진의 이유는 무엇이고 훈련 일정은.

▲스윙 밸런스가 무너졌고, 하체의 힘도 떨어졌다.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타격감이 없었다. 일단 1주일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체력을 보강하고, 배팅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❸ 향후 계획 옛 기량 되찾아 팬들에 보답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물론 재기다. 일단 1군에 복귀하게 되면 올 시즌 최선을 다해 뛰고 싶다. 이종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진 모습을 보인 뒤 떠나겠다. 지도자의 길을 걸을 지, 공부할 지는 그 후에 판단할 것이다.

-끝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KIA와 저를 사랑해 주는 팬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다. 꼭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KIA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상심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으면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은희 8언더 선두 신지애 2타차 2위

KLPGA KB스타투어 3차 1R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를 상대로 ‘1인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지은희(21·캘러웨이)가 시즌 세 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은희는 21일 경북 포항 오션힐스골프장(파72·6천248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1라운드에서 무려 버디 9개를 쓸어담으면서 8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러 단독 선두에 나섰다.

휘닉스파크클래식과 KB스타투어 2차 대회를 내리 제패하며 1승에 그쳤던 신지애를 따돌리고 상급 1위와 다승 1위를 내달렸던 지은희는 최근 두 대회에서 신지애에게 잇따라 우승컵을 내줬으나 추월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올들어 장타력과 샷 정확도가 부족했던 지은희는 6번홀(파3) 3퍼트가 ‘옥에 티’였을 뿐 그린 적중률 100%로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

그러나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신지애도 버디 8개를 뽑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때려 지은희의 상승세에 맞불을 놓았다.

조영란(20·하이마트)이 7언더파 65타를 뽑아내 2위에 올라 시즌 세 번째 ‘톱10’ 입상의 기대를 부풀렸고 작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를 제패해 1억 2천500만원의 상금을 땀던 임은아(24·휠라코리아)가 5언더파 67타로 4위를 달렸다.

지은희와 함께 시즌 2승을 올리던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안선주(20·하이마트)는 1언더파 71타로 부진, 우승 경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비너스 윌리엄스 서리나 윌리엄스

‘흑진주 자매’ 4년만에 복식 출전

세계 여자테니스를 10년째 주름 잡고 있는 비너스 윌리엄스(31위)와 서리나 윌리엄스(7위·이상 미국)가 25일부터 열린 윌블던대회에서 4년 만에 복식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당시 16강에서 탈락한 이후 단식 경기에만 출전해 왔다.

비너스의 에이전트인 카를로스 플레밍은 21일 AP 통신과 인터넷에서 “윌블던 조직위원회가 와일드 카드로 출전을 권유, 자매가 수락했다”고 밝혔다.

둘이 합쳐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컵을 13개나 획득한 비너스와 서리나는 복식에서도 선 굵은 족적을 남겼다. 이들은 1999년 프랑스오픈과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2년 윌블던을 제패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호주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려 ‘복식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흑진주 자매는 윌블던과 특히 인연이 깊어 단식에서도 비너스가 2000년, 2001년, 2005년, 서리나가 2002~2003년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현 9월 K-1 출전 할듯

민속씨름 전하장사 출신 김영현(31)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K-1 월드그랑프리 개막전’에서 해비급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21일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가 전했다.

신문은 K-1 주최사인 FEG의 다니카와 사다하루 대표를 인용, 김영현 측과 FEG 한국지사가 접촉했다며 “한국에서는 K-1과 종합격투기 히어로즈(HERO'S) 대회 인기가 대단하다. 교섭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닛칸스포츠는 특히 “김영현이 씨름관에서 통산 35차례나 우승하고 ‘테크노 글리앗’ 최홍만(27)과 상대 전적에서도 8승5패로 우세하다”며 그의 활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실력과 인지도, 스케일 등 모든 면에서 최홍만을 능가하는 ‘월드 글리앗’ 김영현이 K-1과 계약하면 이례적으로 조기 출전할 수도 있고 격투기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17cm 153kg의 김영현은 2005년 소속 씨름단인 신강건설이 해체되면서 모래판을 떠난 뒤 종합격투기 진출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남녀 ‘몸짱’대결?

21일 오후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7년도 미스터 & 미즈코리아 선발대회’ 예선전에서 남자 학생부와 여자 일반부 참가자들이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